



U-20 월드컵 성공개최 다짐 2017 FIFA U-20 월드컵 성공개최 다짐대회가 지난 12일 전주시 완산구청 8층 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공무원, 자생단체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북도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농촌경제 활성화 촉매제 역할 '톡톡'

전북도의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이 농촌지역의 일자리와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해 '삼락농정(三樂農政)'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자립경영이 가능한 우수 마을기업에 제품개선,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기계·장비 구축, 판로 및 정보화 등을 지원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북도가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마을기업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품개선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해 4개 마을기업을 선정 지원했으며, 향후에는 식품가공분야 소규모 HACCP 시설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마을기업은 농·식품분야가 약 80%로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있어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2015년 시행 이후 2년간 정읍 '콩사랑' 등 2곳 매출·일자리 크게 증가 지역주민에 큰 도움 줘

있는데,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첫 해 지원기업들의 연 평균 매출액은 2015년말을 기준 약 1억7,85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40.9%가 증가했고, 지난해 말 기준 약 3억8,966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7.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는 2015년말을 기준 10명(비상근포함)으로 약 13.0%가 증가했으며, 지난해말 기준 18명으로 약 56.2%가 증가해 농촌경제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사업 지원 마을기업인 정읍시 소재 '콩사랑'의 경우,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귀리와 현미 등의 원료농산물을 대부분 매입해 곡물가루, 통곡식, 떡 등의 제품을 생산·판매해 10억여원의 매출과 4명의 추가 채용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도 지원 마을기업인 완주군 소재 마더쿠기의 경우에도, 100%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제과류(쿠키, 빵)를 생산·판매해 지난해 8억여원의 매출 성과와 14명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특히, 14명 중 결혼이민여성 5명과 농촌어르신 3명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있어 마을기업과 지역공동체가 서로 협력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편, 송하진 지사는 지난 10일 도청

4층 접견실에서 '2017년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11개 마을기업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송 지사는 "마을기업은 일자리가 부족한 농촌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기업 대표들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사업에 임하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해 담당지역의 리더로서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 으뜸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진안군 소재 원연정마을의 신애숙 대표는 "지난해 1억원의 매출과 15명의 일자리 제공 등의 성과를 올렸으나, 늘어나는 방문객과 제품 주문량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해서 다소 안타까웠는데 이번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으로 부족한 설비를 보강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전북도의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하진 지사는 지난 10일 도청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 문 대통령, 첫 공식 현장일정

갈등 빚어왔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 해결 길 열려

“각 부처, 올 하반기 내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전 첫 공식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이는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올 하반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운영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전면 재조정,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점대상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

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기존의 임금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 채 임금시간만 단축된다면 그동안 초과 수당으로 유지해왔던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노사정이 함께 고충분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데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에 따라 올해 내 인천공항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이행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오랫동안 비정규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됐다.

아울러, 정 사장은 대통령의 일자리창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 및 계열사들을 통해 2020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3만개, 2025년까지 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의 보고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와 같은 조치가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익산 그랜드 취업박람회, 17일 원광대서 개최

익산시는 '2017년 익산 그랜드 취업박람회'를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와 익산시가 공동주최하고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이 주관해 구직자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취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추진된다.

채용관 40개 부스와 구직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성공패키지 부스, 취업상담 컨설팅관, 이미지메이킹, 지문적성검사관, 창업컨설팅, 직업훈련 등의 부대행사관을 포함 총 62개 부스로 다채롭게 운영된다.

박람회에는 (주)하림 등 전북지역 굴지의 대기업과 전방(주) 등 지역 내 내실 있는 우수기업과 중견기업이 참여한다. /익산=장영원 기자

메일 INDEX

3면 - 문 대통령, 국정교과서 폐지 지시

4면 - 이관식 김제시장, 형소심서 집행유예

6면 - 전북 드론기업 성장 이끈다

16면 - 전주 첫인상 프로젝트

제23회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천국꽃제

2017. 4. 22(토) ~ 5. 21(일)

주제 : 사랑의 기쁨! 그리고 힐링의 발원!

장소 :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지리산 운봉 바래봉 일원

주최 : 운봉애향회, 운봉읍

후원 : 남원시, 운봉읍 사회(봉사)단체